

평생학습도시의 지역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구리시의 지리 탐방대 활동을 중심으로 -

서정훈* · 주경식**

A Study on the Regional Learning Program in the Lifelong Learning City

- Based on an Empirical Case Study of the Geography Exploration Group in Guri, Gyeonggi Province -

Seo, Jeong Hoon* · Joo, kyung Sik**

요약: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내의 많은 도시들이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지리 지식을 중심으로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밝히려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사회의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구성은 학습자, 교수자, 지역의 특징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상황학습론적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학습동아리 구성과 같은 지역인적자원의 적극적인 양성과 이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봉사학습(SERVICE-LEARNING)이 교수법으로 효과적이다. 둘째,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고 참여한 지역학습 프로그램인 '지리 탐방대'를 통한 현장중심 체험학습의 결과, 대부분 참가자들이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났다. 셋째, 평생학습사회에서 지리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지리교사를 비롯하여 지역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었다. 현실적으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전문가들의 역할이 진요하였다.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생활에 적용이 이어진다면 지리교육은 평생학습사회에서 안정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주요어: 평생학습도시, 지역학습, 상황학습론, 지역사회봉사학습, 학습동아리

Abstract: With the advent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most of the cities in Korea have been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lifelong learning city. At this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gure regional learning programs and apply them to the actual world.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learning programs i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re desirable to be configured with the situated learning method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instructors and the local contexts. In addition, the active training of regional human resources such as organizing learning circles and SERVICE-LEARNING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m is effective as a teaching method. Secondly, the consequence through the field excursion calling itself 'the geography exploration group', organized by the researcher and involved with participants together provoked the paradigm shift on their region and the regional identity. Thirdl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experts including geography teachers should be needed for the popularization of geography education. Hence, if we continue to develop the local learning programs tailored to regional traits and apply them to the actual world, geography educa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o build the stable foundation i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Key Words: lifelong learning city, Regional learning, Situated learning, SERVICE-LEARNING, learning circle

1. 서론

1) 연구 목적과 배경

현대사회는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지역문화 창안이 이루어지는 지식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늘어나면서 학습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관심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즉,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중심의 공적교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더하여 지방자치, 지역혁신 등의 정책적인 틀 안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하지만 아직 까지도 평생교육은 학습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초창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남양주시 진건고 교사(Teacher, Namyangju Jingeon High School)(simer2@empas.com)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2nd Colle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ksjoo@knue.ac.kr)

기의 비판적, 공동체적 가치를 상실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김신일, 2004).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러 정책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며 구축된 것이 바로 평생학습도시이다. 이런 측면에서 평생학습도시계획은 지리지식의 대중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지역사회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학습내용의 구성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계획이다. 또한 지리적 지식의 확산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리교육'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정보화,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지리적 지식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배경이 지역의 문화나 경제의 기초가 되며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셋째, 크게 증가하고 있는 퇴임 후의 활동을 비롯하여 평생학습사회의 지리적 지식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의 맥락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았다. 첫째, 평생학습도시의 지역기반사회교육의 새로운 학습이론으로 상황학습론과 지역사회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용이성을 확인하였다. 학교교육보다 여러 학습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평생교육활동은 학습자들의 일상세계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적 맥락 중심의 다양한 학습요소들을 수용해 갈 수 있는 교육학적 접근과 지역사회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학습이론과 지역학습 프로그램 적용의 가치를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리 탐방대'를 조직하여 시행했던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구리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어느 정도의 지역학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주민들의 학력과 생활수준에 있어서도 지리의 대중화를 위한 규모의 적절성을 갖춘 곳이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지리 학습동아리를 조직한 후 그들과 함께 참가를 희망한 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리 탐방대 활동의 준비과정, 실천과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지금까지의 지역 이해 교육이 주로 향토교육을 통한 역사적인 내용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면, 지리 탐방대 활동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정체성이 부족하고 도시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지리적인 접근을 통한 올바른 지역 이해 교육의 새로운 접근이었다. 셋째, 이러한 탐방활동에 참가한 학습자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다. 일회적인 설문조사만이 아니라 참가자들에 대한 수차례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개개인의 인식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를 강사진과 학습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지리지식의 대중화를 가져오고, 지리교육이 지역정체성의 확립과 평생학습도시에서만 아니라 평생학습사회의 안정적인 토대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의 현황, 평생학습사회의 새로운 교육학적 접근과 함께 사례지역의 일반 시민(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지리적 지식을 중심으로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았다. 우선 평생교육, 지역학습,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부처의 각종 보고서와 정책연구물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평생교육통계,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와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인식변화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 사례지역인 경기도 구리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세부적인 운영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운영매뉴얼, 예산 집행내역, 운영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사업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까지 파악하였다.

실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학습동아리의 구성과 성과 그들과 함께 교재의 개발과 실제 프로그램 적용활동에서 연구자와 논의한 내용들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재는 어떤 내용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였고 프로그

램의 구성 체제와 절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준비에서부터 현장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진·동영상 촬영, 녹음, 학습결과물 복사 등을 통해 자료를 보존하여 2차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들과 학습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심층면접을 하여 그들의 인식변화 등을 민속기술지(Ethnography) 방법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학습동아리와 연구자는 제작 자료의 실시간 공유와 수정을 위해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¹⁾를 구축하여 보관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지역학습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학교 내 정규과정 이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교육은 평생교육의 영역을 지역사회 수준으로 한정시킨 지리적 영역의 하위개념이나 지역사회개발의 종속적 수단이 아니다(양흥권, 2008). 현대사회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제한적인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다. 지역교육의 인식에서는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해석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특정의 준거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역학습 활동 자체가 주로 학교 밖의 실생활공간에서 학습자들의 자율적인 참가에 의해 진행된다는 차이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학습 활동을 준비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배경을 탐색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학습이론의 배경으로 지역학습 상황에서 지역 내의 생활 속 학습요소와 참가한 학습자들과의 맥락을 중시하는 상황학습론을, 교수방법으로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올바른 지역사회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조력하는 SERVICE-LEARNING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진행하였다.

1) 상황학습론

전통적으로 인지과학과 학습·발달심리학에서

‘학습’과 ‘발달’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지식 구조와 틀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사회, 문화, 환경은 오로지 개인의 인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부가적인 변수로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인지심리학의 틀에서 학습은 오직 초보자(beginner)에서 숙련자(expert)에 이르는 개인만의 변화로 정의되어 왔다(박동섭, 2008). 그에 비해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인식론으로 대두된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와 의미를 삶과 연계시킬 때 교육적 의미는 보다 분명해진다고 보고 있다. 즉, 교육에 있어서 구성주의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산업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교수(teaching)에서 학습(learning)으로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강인애 외, 2006).

한편 평생학습사회의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지역사회의 학습에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학습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학습상황의 변화와 함께 학습자들의 인식체계 변화는 새로운 학습이론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표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학습이론에 대한 논의 중에서도 지역 중심의 탐방활동에서 만들어지고 연계 되는 지식이 생활세계에 대한 경험의 해석을 강조하고 있어 상황학습론에 주목하였다. 상황학습론은 모든 인지, 학습, 언어의 의미는 지식과 기능, 경험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연결고리인 맥락을 통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임은진, 2009). 이 이론에서 학습은 의미미한 맥락 안에서 일어날 때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념적 지식을 꾸준히 적용하면서 실천지식을 획득해야 한다고 본다.

학교 밖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습은 학교에서 이용되는 텍스트와 같은 정형화된 내용이기는 보다는 지역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획득된 내용이 주로 이용된다(Jean Lave & Etienne Wenger, 2000). 따라서 상황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활동이 전개되는 평생학습사회의 지역학습은 상황 학습적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 학습 프로그램도 지역사회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

표 1. 새로운 학습이론의 비교

구분	활동이론	상황학습론	분산인지론	생태심리학
학습을 일으키는 활동	목적을 가진 인간의 의식적 활동	진행 중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활동	인지 시스템 구성원들 사이에서 도구가 중재하는 활동	환경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에 대한 지각 활동
학습의 정의	학습자의 목적이 결과로서 변환되는 과정	실천공동체의 주변적 참여자로부터 핵심구성원이 되는 과정	새로운 분산인지 시스템의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는 과정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탐지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과정
학습자의 역할	매우 능동적인 학습자	능동적인 학습자	능동적인 학습자	매우 능동적인 학습자
교사의 역할	학습자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	실천 공동체의 대인 또는 선임의 역할	새로운 분산인지 시스템의 설계자	학습자에게 새로운 어포던스 환경을 창조적으로 제공

자료: 조규락(2003).

여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현장 체험활동이 진행되는 장소에서의 학습상황 맥락을 통해서 학습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사회의 각종 지역기반 프로그램의 내용은 현재의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에 수업설계자가 어떠한 가정과 관점을 가지고 수업설계에 임하느냐에 따라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구현되는 학습 환경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므로, 수업설계자의 교수-학습에 대한 가치관이나 현장 경험이 수업설계 활동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손은정, 2003). 즉, 교수자에게는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밀착되어 수업 설계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학습 프로그램 전개에서는 탐방 장소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내러티브적 탐구(narrative inquiry) 활동과 같은 상황적 맥락에 따른 전개방식이 바람직하다. 교육은 사람과 환경(인적/물적, 사회적/자연적, 실제적/인위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육에 대한 연구는 사람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경험을 주제로 삼게 된다. 따라서 경험은 교육연구의 출발점이자 근거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야기의 형식이란 화자(話者), 등장인물, 시간, 장소, 일어난 사건, 청자(聽者) 등의 요소들이 줄거리를 갖추며 짜임새 있는 모습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

의 경험을 떠올릴 때도 경험은 이야기의 형식을 갖지 않으면 파편적인 기억으로 남게 되어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SERVICE-LEARNING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로컬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지역사회 교육활동에 있어서 SERVICE-LEARNING²⁾은 새로운 교수법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본래 학생들이 봉사체험과 함께 학문적 지식과 문제해결과정을 함께 배우는 사회문제 중심의 문제해결 교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교수방법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가 행하고 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게 하는 구조화된 시간이 제공된다(한인영 외, 2005). SERVICE-LEARNING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봉사활동과는 달리 교과과정과 봉사학습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배양하도록 돕는 경험적인 교육의 한 방법으로 최근 대학교육에서 관심이 높다.

SERVICE-LEARNING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정치학, 교육학, 간호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대학에서 봉사학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봉사학습의 규모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즉,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이 강조되면서 대학 내에 사회

봉사관련 조직 설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제,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대학에 사회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교육이 현실 사회와 연계되어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할 때 시민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전공과 연계된 SERVICE-LEARNING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SERVICE-LEARNING 경험을 통해 학생이 얻는 이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교과과정의 학습을 강화,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 시민적 책임감을 발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학생들이 경험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교수자나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발달,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증가, 리더십 기술이 향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과의 교육목표를 실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지리교육에서도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잠재된 가치가 높고, 특히 지역지리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지역학습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평생학습도시와 지역이해 교육

1) 평생학습도시의 정의와 배경

평생학습은 사회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면서 ‘사람’과 ‘지식’, 곧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지역공동체 가치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우리 교육을 견인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손승남, 2009).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방화의 중요성은 증대되었고, 공동체가 파괴될수록 공동체를 회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지역개발보다 지역 재생에 주목하게 되었다(World Bank, 1999). 결국 지역공동체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시대에서의 특색 있는 지자체 건설은 ‘학습’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한편 도시는 지적 자본, 금융 자본, 정보 기반이 밀집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형성하여 지식기반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조

건을 갖추고 있다. 결국 평생학습도시는 이러한 도시환경의 토대 위에 지역사회 교육을 통한 도시의 재구조화를 구축하려는 정책적인 시도를 말한다.

2) 국내 평생학습도시의 현황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는 1994년 경남 창원시의 평생학습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경기도 광명시의 국내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으로 이어졌고,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전국 76개(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32.7%)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³⁾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지자체의 인식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였지만, 최근에는 지정받지 못한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까지 인식되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운영에 따른 성과가 성과를 좌우하므로 다른 정부주도의 교육 사업들⁴⁾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3) 지역이해 교육의 진단

현재 강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과정은 지식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며, 네트워크 논리가 확산되면서 생산, 경험, 문화적인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세기 중엽 이후 강조되고 있는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단순한 시민참여라는 개념보다는 정부, 기업, NGO 간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협력과 참여라는 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되고 있다(박기관, 2009). 특히, 2000년대 들어 여러 도시 지역에서는 도심 지역의 낙후현상, 원주민의 재정착 및 정체성 없는 지역개발,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붕괴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행정이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조정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화가 강조되는 시대에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

성, 이해, 관심 및 책무성의 주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변화보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주민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다(최승범, 2007).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리교육 논의에 있어서도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함께 공간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공간’을 실천적·감각적 영역으로 보는 새로운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조성옥, 2005). 하지만 아직까지는 평생교육의 지역이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지리교육 논의에 비해 지역사회 교육현장의 상황이 반영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은 미흡한 편이다.

한편 실제 국내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현실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형의 사업 추진이 실제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운영이 되는지, 특히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내용과 참가자와 희망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09년도에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자실태를 조사한 내용의 일부와 연구자가 시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는 국내 성인대상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2009년 현재, 국내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8% 정도로 주요 선진국들의 평생교육 참여율(16세~65세 성인대상)인 평균 35%와 비교해 보면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조사 내용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는 희망 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것과 원하는 강좌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와 개설 강좌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요구도 크다는 것이다. 성별과 연령별 조사결과는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중년층 여성들의 평생교육 참여 희망 수요가 가장 높은 국내 평생학습의 실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관심도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대도시로 갈수록 높은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연구지역과 같은 중소도시가 근거리에서 원하는 강좌의 개설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적게 나왔다. 대도시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경제수준을 지닌 참가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기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자기 부담금 총액은 커진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관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표 2).

표 2. 평생학습 참여에서의 문제점

(단위: %)

		자격 요건 미비	높은 교육 비용	직장 지원 부족	근무 시간과 겹쳐서	근거리 강좌 부재	학습 이행 불안감	학습자 건강과 연령	시간이 없어서	희망 강좌 미개설	강좌 시간 불일치
전체		2.4	31.0	1.8	18.9	17.6	5.5	4.4	85.5	10.9	16.1
(순위)		9	2	10	3	4	7	8	1	6	5
성별	남자	3.3	20.3	3.7	24.0	12.3	5.8	4.5	77.8	9.2	12.0
	여자	1.7	38.1	0.5	15.7	21.1	5.2	4.4	90.4	12.0	18.7
연령	25-34세	3.0	35.8	2.4	21.3	20.6	4.5	1.6	96.9	9.1	20.9
	35-44세	2.5	36.5	2.1	20.3	15.0	5.9	1.6	88.0	10.7	14.6
	45-54세	0.9	25.3	0.9	20.5	14.9	6.8	4.1	78.8	10.8	14.4
	55-64세	2.9	14.7	0.5	7.0	21.5	4.9	19.3	61.3	16.2	10.3
지역	서울 및 광역시	1.7	37.2	1.8	24.2	19.0	6.8	6.1	87.1	10.0	14.3
	중소도시	4.0	31.1	2.4	16.8	13.7	5.5	3.2	85.2	10.4	18.0
	농어촌	0.6	12.6	0.2	8.6	22.8	1.5	2.6	81.1	14.6	16.9

주: 총 표본 수는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⁵⁾에 참가한 전국의 성인 4,500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2009), 연구자가 재구성.

4) 구리시의 지역사회교육 환경

연구지역인 구리시는 1986년 시로 승격된 경기 동북부의 작은 도시로 이후 본격적인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소비도시지만 최근에 다른 서울의 위성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도시 기능 변화를 겪고 있다. 경기도청의 시민의식 설문조사(2008년)에서도 구리 시민들은 저렴한 주택 가격을 전입이유로 든 경우가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이상 많았고, 거주한 기간도 경기도 평균 15년에 비해 11.3년으로 짧았다. 이러한 시민들은 현 거주민의 기본특성에서도 추론할 수 있듯이 애항심이 약하고 지역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역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첫 해인 2005년에는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기존의 평생학습 시설에 대한 통합과 집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2006년도에는 평생학습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정착을 목표로 도시비전 및 시정방침과 연계하였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각각 평생학습을 통한 활력 있는 친환경도시 만들기과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어느 정도 안정된 학습 환경을 토대로 시민들

의 수요에 부응하며 구리시 자체 예산을 증액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전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국비지원액의 감축으로 새로운 국면에 있다. 그렇지만 구리시의 추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동아리의 육성과 지원 사업, 우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의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감소에 비하면 오히려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초기의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점차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으로 사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또한 2009년 10월 제8회 평생학습축제를⁶⁾ 계기로 시민들의 관심 증대와 함께 그간의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재편되고 있다.

한편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연구자가 실시했던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⁷⁾에서도 성인의 90.8%와 학생의 36.1%가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능력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지리교과에 대한 반응에서도 관내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생들과 일반 성인 모두 아직까지도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이 컸다.

표 3. 구리시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2005년				2006년			
사업명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		
	계	시비	국·도비		계	시비	국·도비
소계	4,046	3,684	362	소계	24,720	13,690	11,030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10	5	5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10	10	-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2,229	2,037	192	우수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620	2,600	20
2007년				2008년			
소계	15,655	9,265	6,390	소계	3,120	3,030	90
학습동아리 등록제 운영(DB) 구축	10	10	-	학습동아리 카페 만들기 사업	20	20	-
우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550	2,500	50	우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815	2,815	-

자료: 구리시,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2005), 연구자가 재구성.

하지만 지리교과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실용성과 지역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즉, 지역학습 프로그램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공간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경험을 소재로 지리 지식을 통한 구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표 4).

표 4. 구리시 시민들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참여

(단위: %)

조사 내용		고등학생	일반성인	
평생교육 참여 경험	평생교육 참여 프로그램	자기 계발	36.1	90.8
		자녀교육	0.0	9.2
		청소년활동	30.6	0.0
		봉사활동	19.4	0.0
		생태체험	13.9	0.0
	지리 관련 프로그램 경험	지역탐방	0.0	38.1
		생태교육	0.0	38.1
		향토 지킴이	0.0	4.8
		향토연구회	0.0	4.8
		역사논술	0.0	9.5
		소각시설탐방	8.3	0.0
		하천생태체험	75.0	0.0
		갯벌체험	16.7	0.0
		기타	0.0	4.8
지리교과에 대한 평가	지리교과의 효용성	실용성	33.2	37.3
		지역 이해 도구	14.3	14.9
		사회현상이해	32.8	21.7
		지역현안파악	8.4	1.9
		자녀학습도움	8.8	19.3
		기타	2.5	5.0
	지리교과에 대한 인식	암기과목	39.5	62.6
		실용적	10.9	11.7
		종합과학	31.5	18.4
		공간강조	15.5	7.4
		기타	2.5	0.0
	지역학습 프로그램 교재 구성 희망 내용	실용적 지식	23.0	1.8
		지역이해	39.1	46.6
		시사이해	17.2	10.4
		지역사회현안이해	9.2	9.8
		자녀교육도움	9.7	31.3
		기타	1.7	0.0

자료: 연구자의 설문조사(2009년).

4. 구리시 지역학습 프로그램 ‘지리 탐방대’ 구성

1)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

그 동안 일상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학습, 향토교육, 지역화학습에 대한 연구는 역사과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지리교육에서도 연구의 범위가 초등에서 중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교수학습이론 및 수업모형에 대한 연구, 지역성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소규모 사례지역의 학습이나 연구방법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요 관련 연구를 정리해 보면, 조성욱(2002)은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역화 학습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가 되며, 지역화 학습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주변지역학습의 의의를 제기하였다. 손일·전중환(2003)과 윤옥경(2004)은 사회과 지역학습의 구성방안과 일상경험 중심의 내용 구성을 강조하였다. 황홍섭(2006)은 실생활과 관련된 감성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였고, 이재하(2007)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이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리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역학습의 의의와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고는 있지만 평생학습 차원의 실천적인 연구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학습 프로그램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지역학습은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학습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지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지리적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탐방일정을 계획하였다. 둘째,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다. 지역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지적인 능력, 수용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체험학습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체험학습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실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상황학습적인 맥락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의 수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전문가 집단(예를 들어 현직 관련 교과 교사, 지역사회 강사 등)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 상황에 대한 지침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은 연구자와 학습동아리 구성원들과의 꾸준한 논의와 2009년도 예비활동의 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실제 프로그램 전개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절차 등의 일부 보완은 이어졌다.

2) 지역인적자원 양성에서 학습동아리 구성까지

본 연구의 지역학습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학습한 지리 지식을 통해 봉사체험을 하는 주체로서 학습동아리가 구성되었다. 원래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학습동아리(study circle)는 일정한 인원, 자발적인 참여, 정해진 주제의 학습과 토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학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교육은 해당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들 자신이 지역에 기반을 둔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활동을 이끌어 갈 때 학습효과는 더욱 현실적이다. 결국 구리시에서 오랜 기간 재직했던 연구자의 객관적인 지역 이해와 구리시에 거주하는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교육적으로 통합하여 참가 학습자들이 올바른 지역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활동이 전개되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습자용 워크북 개발, 강사용 매뉴얼 개발, 교수학습매체개발, 평가도구개발, 프로그램의 문서화 순으로 어느 정도는 일반화 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단독으로 전체적인 내용 구성과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구성된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준비, 개발, 운영을 진행하였다. 지리 학습동아리(공식 명칭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는 2008년 12월 결성되어 지금까지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과의 첫 대면은 연구자가 구리시의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방과 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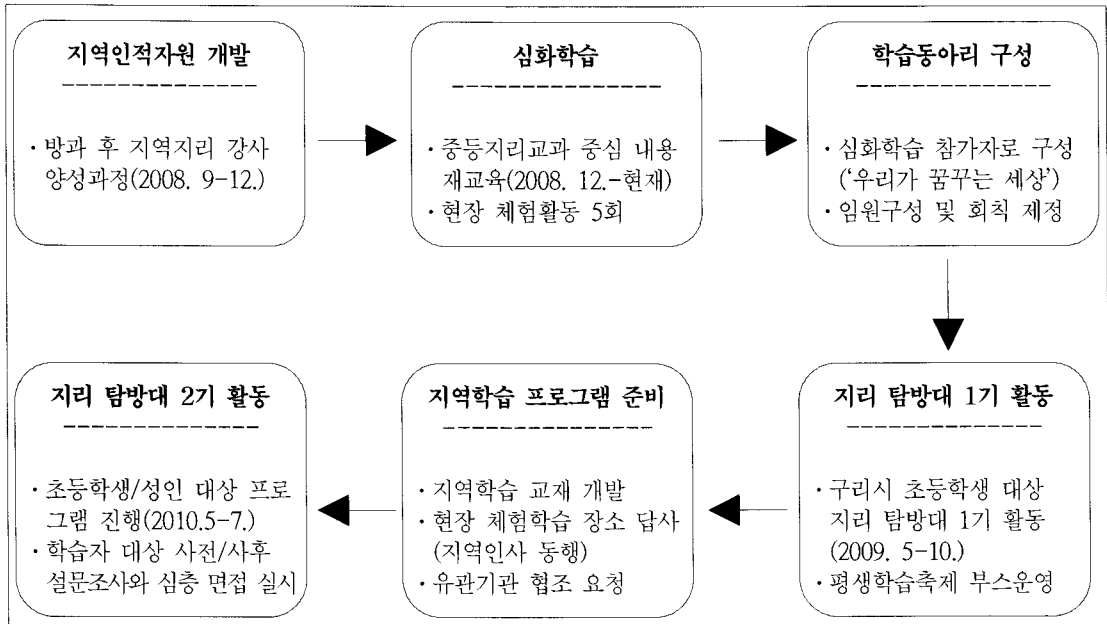


그림 1. 학습동아리 구성과 지리 탐방대 활동 프로그램 구성 절차

도자 양성 과정 강좌 중 지리과정(2008.9.4~12.18)의 강사로 출강하면서부터였다. 2007년 서울 송파구에서 동일한 강좌가 처음 역사과를 중심으로 시도되었지만 교과내용별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학습자들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에 구리시 시민단체에서는 지역 전문가에게 강의를 의뢰하면서 연구지역과 인접한 남양주시에 계속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짧은 기간의 강좌를 마친 후 일부 수강생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중등 지리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사적인 여러 현안들에 대한 토론 중심으로 심화학습⁸⁾이 이어지게 되었고, 심화학습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기반 지리교육에 대한 평소의 관심이 결집되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지리 학습동아리가 출범⁹⁾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지리 관련 강좌를 수강하게 된 것은 방과 후 지도자 양성 과정이 모두 처음이었고, 구리시 생태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한 강좌 수강 내용 정도가 지리적 지식과 조금이나마 관련된 사전 교육내용의 전부였다(그림 1).

심화학습 과정을 주중 1회 실내 이론교육으로, 주말에는 월 1회 야외 탐방활동으로 진행한 후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간의 학습결과를 직접 현장에

투입하려 하였다. 대부분이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 활동을 담당해 본 경험이 제한적으로라도 있었기 때문에 심화학습 기간에도 학습한 내용을 다른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지리지식의 수업설계에 대한 논의도 꾸준하였다. 이렇게 ‘지리 탐방대’라는 프로그램 명칭으로 개설된 구리시 지역학습 프로그램은 2009년 시범적으로 진행(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9차시로 진행)되었고, 연구자보다는 학습동아리 회원들의 기획, 모집, 운영의 비중이 컸다. 즉, 동아리 구성원들은 스스로 학습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옮겨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황학습론에서 정의하는 학습의 의미와 같다. 구리시 교문도서관의 실내교육 장소 제공과 참가자 모집 지원에 힘입어 구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0명이 참가하게 되었고, 매 차시별로 동아리 회원들이 분담하여 강좌교재와 교구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지리 탐방대 1기 활동경험은 실제로 연구된 지역학습 프로그램이 투입된 2기 활동(2010년)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였다. 1기 활동의 전 과정은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의 충분한 사후 평가와 함께 2010년 4월까지 교재 개발을 비롯하여 본격적인 지역학습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 기간에는 구리시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을 비롯하여 지역

표 5. 지리 탐방대 프로그램 일정 및 주요 주제(2010년)

일자 시간	1차시 (5.2)	2차시 (5.16)	3차시 (5.30)	4차시 (6.6)	5차시 (6.20)	6차시 (7.4)	7차시 (7.18)	8차시 (7.24)	
주요 주제	학생 (2기)	구리시 연 혁/개관, 그림지도 그리기 등	자연환경/ 주민생활, 도농복합 경관이해	도시환경 이해, 친환경 개발	도시의 기능, 입지요인 분석	역사/문화 의 가치, 생태하천	전통문화/ 보존가치, 지역개발의 명암	도시 간의 상호작용, 도시의 미래상	각 모듈별 발표, 총평 및 시상식
	성인 (1기)	구리시의 자연/인문 환경 개관	구리시의 지역성 논의	구리시의 환경문제/ 해결책 논의	구리시의 도시구조, 기능별 입지요인	지역의 변천과정, 생태하천 이용방안	도시택지 개발 논의, 주거환경 논의	도시 간의 상호작용, 도시의 미래상	각 모듈별 발표, 총평 및 시상식
10:00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11:00	구리타워 탐방, 구리시 개관	돌섬마을 탐방	장자호수 공원 탐방	돌다리 (수택동) 중심가 탐방	동구릉 주변 (왕숙천 주변 포함) 탐방	갈매동 (남양주 별내면) 탐방	이웃지역 (잠실, 남양주) 실내교육	발표회	
12:00									
13:00									
13:10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귀가	

전문가들과 구리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6회 탐방활동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구리시청 평생교육과와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외부 활동이 어려운 기상 상황을 대비한 실내교육과 발표회 장소까지도 미리 확보하였다. 이러한 준비 활동이 이전보다 철저했던 것은 이들이 단순히 지식 전달의 주체로서만 활동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SERVICE-LEARNING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지리 탐방대 활동은 2010년 5월 2일 첫 야외 탐방을 시작으로 총 6회의 현장 체험학습 활동과 각 1회의 실내 교육과 발표회가 7월 하순까지 매월 1, 3주 일요일 오전에 3시간씩 준비된 교재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1기 활동과는 달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적용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성인과 학생은 동일한 장소에서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20분 이상의 이동 시차를 두었으며, 학생은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성인은 연구자와 일부 동아리 회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였다.

주요 탐방장소는 구리타워, 돌섬마을·별말, 장자호수공원, 수택동(돌다리), 동구릉 주변, 갈매동

일원으로 사전에 예비 탐방활동을 통해 결정된 장소였고, 도평도서관에서는 이웃한 남양주시와 구리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서울 송파구 잠실 주변에 대한 실내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중 돌섬마을과 갈매동 탐방은 참가자들에게 구리시의 과거와 지역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곳들은 현재 참가자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으로 구리시가 지금과 같이 개발되기 직전의 경관들이 많이 남아 있고, 현지 주민들의 삶의 양식이 평소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라서 깊은 인상을 주었다(표 5).

3) 탐방 장소에서의 내러티브 탐구적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의 적용은 맥락적인 실천적 지식의 획득과 문제 해결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향토 사학자, 해당 마을의 원로들, 지역 현안 문제를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 갔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을 통해 강사와 학습자간에 새로운 지역지리 지식이 형성되었다. Clandinin & Connelly(1986)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연구의 대상이며 연구의 방법이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장소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의 중심이며,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서 주위의 다른 환경보다 특이한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환경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장소 중심의 학습에서는 장소 체험을 위한 방법적 소재로서 내러티브가 이용될 수 있는데, 장소 개념에 내러티브라는 형식이 적절히 매개된다면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학습자의 관심과 체험적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김혜숙, 2009).

이러한 순환적인 과정에 따른 내러티브적 접근은 사회과교육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리 탐방대 현장 체험 활동에서도 이러한 순환적인 진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비록 물리적인 범위는 작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탐방 활동이었지만, 참가한 학생들과 성인들에게는 각각 학교 안의 시·공간적인 학습 장애와 반복적인 일상 생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경험이 되었다.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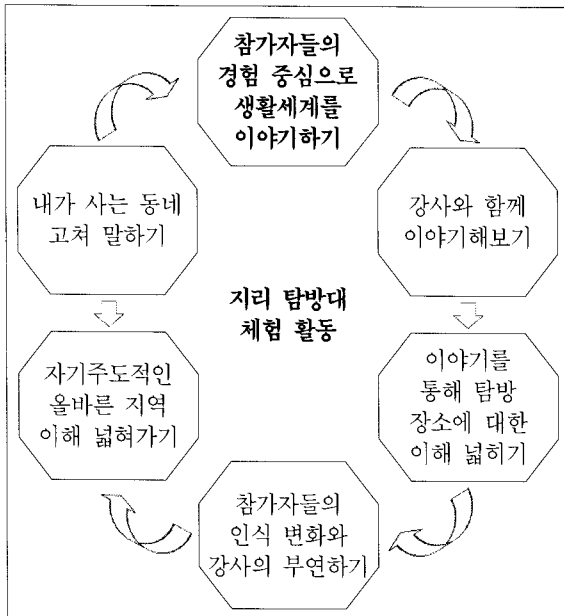
차시별로 탐방활동이 진행되는 장소들은 대부분 간선도로에서 벗어난 곳으로 참가자들에게도 거의 첫 방문지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이 상황학습적인 내러티브적 탐구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참가한 학습자들에게 처음에는 낯설었던 장소가 점차 익숙한 곳으로 인식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한 학습자들의 현장에 대한 첫 느낌과 유사한 지역 방문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여 강사와의 의견 교환, 교재 내용을 통한 객관적 사실의 보완, 현지 주민과의 인터뷰 등이 상황에 따라 추가되면서 참가자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지역 인식이 형성되어 갔다(그림 2).

5. 지역학습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지역 인식변화

1) 참가자들의 인식 변화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지역학습 프로그램인 지리 탐방대 활동은 궁극적으로 참가한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지역이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지역 현안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데 있다. 이에 프로그램의 적용 전후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 전에 모집된 학생들(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39명)과 일반 성인(21명)을 대상으로 구리시에 대한 지역 및 공간 인식, 지리(사회)교과에 대한 인식, 탐방 활동 참가에 따른 기대 등을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맞춤형 진행 전략 수립에 참고하였다. 그리고 발표회를 마친 후에는 사후 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변화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확인하였다. 한편 학습동아리 회원들은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논의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학습자에서 교수자로의 전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인식변화를 오랫동안 조사하였다.

사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참가 학생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지역성과 지역현안 문제, 지리교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지만, 현재 재학하는 학교에서 지리(사회)교과 수업을 듣기 시작



자료: 김대현(2006), 연구자가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2. 내러티브 탐구 방식의 지리 탐방대 현장 체험 활동 진행 과정

하거나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교과학습과의 연계성에 부담이 컸다. 즉, 재학생 신분으로 탐방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주로 탐방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에만 중점을 두었다¹⁰⁾.

학생들과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적용은 2010년 올 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는데 먼저 모집된 참가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그들이 희망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초기에는 이들도 학습동아리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 지리교과 수업 이후에 체계적인 지리교과에 대한 재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와 학습자간의 도제 관계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레포(rapport)의 형성을 얼마나 빨리 이끌어내는가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과서와 같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전개가 아니라 상호 소통하고 토론하는 학습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학습형태는 학습자들의 관심영역을 학습의 소재로 연계하여 유의미

한 학습을 이끌어 가기 위해 학습자의 맥락을 고려한 상황 학습론적인 학습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사후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성인들은 학생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던 탐방 활동이었지만 개인별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고, 지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고의 전환이 쉽게 발견되었다.

우선 구리시의 지역성에 대한 인식과 지역 현안 문제의 인식 변화를 보면, 참가자의 85.7%가 구리시에 거주한 지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주 전에 다른 지역에서 들었거나 언론매체 등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구리시에 대한 고착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특별한 것이 없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 거주 기간이 짧고 구리시의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적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탐방활동을 통해 구리시를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인식하면서 이후 친환경적 생태도시로 구리시의 미래 비전을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지리 탐방대 활동 자체가 어느 정도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표 6. 지리 탐방대 참가 성인들의 지역 인식 변화

(단위: %)

조사 내용		응답 내용		조사내용		응답내용	
지역성 인식 변화 내용	참여 이전	도농복합도시	22.2	탐방활동에 대한 총평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83.3	
		위성도시	44.4		시간확보의 어려움이 아쉬움	11.1	
		소비향락도시	27.8		다른 지역 탐방 연계가 아쉬움	5.6	
	참여 이후	작은 도시	5.6	추후 2기 탐방활동 참가 희망 여부	반드시 참여	77.8	
		도농복합도시	22.2		보통	22.2	
		자연친화적 도시	55.6		불참 예정	0.0	
		발전하는 도시	22.2		지역 내 뿌리의식교양	5.6	
					학부모간의 학습품앗이	11.1	
지역 현안 인식 내용 변화	참여 이전	교통체증	5.6	추후 가족과의 개별 탐방 계획 구상	지역인적자원과의 교류확대	72.2	
		작은 규모	16.7		전국단위의 테마기행	11.1	
		정체성 부재	11.1		자녀교과지도 도움	22.2	
		없음	66.7		다른 지역 이해	72.2	
	참여 이후	현안문제 관심증가	16.7	추후 개설 희망 내용	순수 성인강좌	0.0	
		환경 친화적 개발	72.2		다양한 분야 탐구	5.6	
		지역에 함양	2.5				
		지역홍보 강화	2.5				

주: 총 6회의 현장 체험학습과 1회의 실내 교육활동에 모두 참석했던 성인 18명의 답변만 통계 처리함.
자료: 연구자의 설문조사.

성인의 경우에는 학생과 달리 주관식 문항의 설문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은 올바른 지역 이해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탐방활동의 유의성, 추후 연속적인 강좌 개설에 대한 요구,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탐방 기회 제공 등의 평가와 요구가 있었다. 특히, 탐방 활동 참여 이후에 가족과의 개별적인 탐방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지역 탐방대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후 주민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늘려가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

해가 지역사회의 진정한 통합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상향학습적인 진행을 통해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느 정도의 학습목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표 6).

2)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구리시 지역 탐방대 활동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체는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이었다. 방과 후 지역 지도자 양성과정 때의 학습자에서 출발한 이들은 심화학습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후 결국에는 프로그램의 진행 주체가 되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의 주변부에 있었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에 대한 공감감이 형성된 이후에는 오히

표 7.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인적사항	총평 내용	인적사항	총평 내용
황** (동아리 회장, 50세, 여)	“과연 학습동아리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유지될지 몰랐다. 분명한 것은 현장의 지리 선생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김** (43세, 여)	“처음에는 내가 담당하게 된 장자호수공원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함께 자료도 찾아주고 교재 편집에도 도움을 주어 무사히 마친 것 같다. 다음에는 내가 다른 분들을 먼저 도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강** (동아리 총무, 46세, 여)	“사실은 전혀 몰랐던 지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게 될 줄은 몰랐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46세, 여)	“사실 돌섬마을을 탐방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이후에는 점차 매끄러운 진행이 되는 것에 안심이 되었다.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29세, 여)	“그 동안 여러 강좌 진행을 해 보았지만 이렇게 오래 준비하고 만들어 내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지리가 마치 나의 원래 전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든다.”	전** (49세, 여)	“첫 차시를 담당하면서 다섯 번이나 구리타워에 다녀왔었다. 그래도 막상 첫날이라서 우왕좌왕하는 내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후 다른 분들을 도와 다음 차시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내가 더 많이 배운 게 아니었나 싶다. 나도 서울에서 자라고 살고 있지만 구리시가 고향이 된 느낌이다.”
김** (50세, 여)	“사는 곳이 서울 송파이다 보니, 구리시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내가 지금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 감사하다. 기회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송파 지역 탐방대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 (38세, 여)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했었는데 매번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참가 학생들과 어른들이 나중에는 모두 친해지게 되었고, 모두가 이웃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행복했다.”

자료: 최종 평가회(2010.7.24.)에 참석했던 회원들의 총평을 연구자가 현장 정리.

려 각자 자기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들과는 수시로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도, 학습 성과, 인식변화 등을 누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방과 후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 때의 개인적인 아쉬움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준비와 발표회까지의 SERVICE-LEARNING을 통해 향상된 주인의식이 다양한 논의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이어졌다. 2010년 7월 발표회를 마친 후 자체 평가회 자리에 참석했던 개개인의 총평을 제시해보면(표 7), 그들은 상당한 정도의 인식변화를 보였다. 시작할 때는 편안하게 배우는 학습자 입장이었는데 지리 학습동아리에 참가를 결심하고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 동참할 때부터는 부담이 커졌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과정임에도 교육현장의 지리교사와 다양한 분야의 개인적인 능력을 지닌 학습동아리 동료들이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회고가 공통적이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현장 지리교사와 같은 지역전문가의 동참이 있었기에 점차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었다.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리시는 안정적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지역인적 자원의 발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로서 학습동아리 구성원들과 참가한 성인들이 제기하는 지역사회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동된 제언은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지역인적자원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그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결론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함께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도시의 재구조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지역 이해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부재는 학습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평생학습도시의 원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사회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리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던 내용을 평생학습과 지역학습의 측면에서 단계별로 기술하고 종합하였다.

‘지리 탐방대’로 명명된 지역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과의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해 선정한 탐방장소에서 상황맥락적인 공감을 통해 새로운 지역지리 지식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적인 주체가 되었던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참가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후에는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지리적 지식을 전달하고 새로운 지역지리 지식을 만들어가는 SERVICE-LEARNING적인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참가한 학습자와 함께 자기 효능감을 높여 갔다.

이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사회의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구성은 참가한 학습자, 교수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맥락을 중심으로 하는 상황학습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또한 양성된 지역인적 자원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SERVICE-LEARNING적인 교수법이 효과적이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역학습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였다.

둘째, 지역학습 프로그램인 ‘지리 탐방대’를 구성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해 본 결과, 지리적 지식의 대중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은 많은 주민들에게 참가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면 급변하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각 도시들이 안고 있는 지역 현안 문제해결이나 결여된 지역정책체의 발전적인 확립에 지리교육과 지리적 지식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탐방활동에 참가한 학습자들에게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와 내러티브 탐구 방식의 프로그램 진행에서도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인식변화가 확인되었다.

넷째, 참가한 학습자들은 탐방 활동 후 스스로가 지역특성을 통찰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 특히,

구리시와 같이 주민들의 거주 기간이 짧아 향토애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학습활동 기회가 더욱 중요하였다.

끝으로 현장 지리교사의 참여와 같이 지역사회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교육의 핵심요소가 되는 학습동아리와 지역학습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전문가와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후 연구에서도 그 동안 진행했던 지리 탐방대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재설계를 통해 주춤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사업, 나아가 평생학습사회의 지역사회교육에 있어서 지리교육이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것이다.

주

- 1) 새롭게 만든 구리시 지리 학습동아리 카페 ‘우리가 꿈꾸는 세상(<http://cafe.daum.net/geography-teacher>)’과 연구자의 개인 교과학습 홈페이지(<http://www.geotutor.pe.kr/>)를 통해 오프라인 모임과 연계하였다.
- 2) SERVICE-LEARNING은 봉사활동과 학습의 통합을 강조하는 지역사회봉사학습을 일컫는다. 유사한 개념인 SERVICE-learning은 봉사에 중점을 두고, service-LEARNING은 학습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국내에는 아직까지 학습에 주안점을 둔 service-LEARNING적인 활동이 우세한 편이다.
- 3) 2001년 대전 유성구, 경기 광명시, 전북 진안군이 지정된 이후 2007년 경남 진주시, 통영시에 이르기까지 76개의 지자체가 지정되었다. 연구지역인 구리시는 2005년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정되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사업은 2008년부터는 유사한 교육목적 사업이 지정된 지역의 중복 지원 중단과 예산액의 감소로 신규지정이 중단되고 있다.
- 4)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문화도시사업, 문화관광체육부의 역사문화마을조성사업, 행정안전자치부의 정보화마을사업 등이 유사한 사업이지만 공통된 핵심과제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 5) 전국 만 25~64세 남녀 성인 중 총 4,500명(참여 가구 수: 3241, 가구당 평균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표는 2009.7.19~10.9 사이에 가구 방문 후 한 가구에서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빠른 순으로 최대 2명까지 해당 가구원과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서울 및 광역시(7개 지역)와 기타 도 지역

을 동지역 및 읍면지역(18개)으로 나눈 행정구역별로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 6) 2009.10.9~10.12까지 구리 한강 시민공원과 유관 기관에서 전국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행사로 구리시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지리 학습동아리도 학습동아리 부스를 운영하여 ‘지리 탐방대 1기’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모았다.
- 7) 본 연구자가 구리시(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포함)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138명)과 고등학교 재학생(238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평생교육의 일반적인 인식정도와 지리교과의 효용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하였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제8회 평생학습축제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심층면접도 일부 병행하였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구리시 관내 5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 8) 처음에는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향토사(역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심화학습의 주요 내용은 우선 중등학교 재학 시절의 지리교과에 대한 재교육의 측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이들의 요구에 의한 심화학습을 통해 교과내용의 보완과 현장 체험 학습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특히, 어느 정도의 교과지식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현장 학습은 후일을 이용해 구리시, 인접한 남양주시 일원에서 5회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교과내용 중심의 학습활동과 실생활 공간중심의 학습활동이 통합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 9) 결성된 학습동아리 회원들(총 11명으로 구성)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교육학 분야 전공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미 시민단체, 직능단체에서 개설했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학교 밖의 교육현장에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일부 회원들은 지역 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생태해설,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 10) 총 6회의 현장 체험학습과 1회의 실내 교육활동에 모두 참석했던 학생 28명의 답변만 통계 처리했는데, 탐방활동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리(사회) 교과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82.1%에 이르렀고, 탐방활동 중 도움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공간인식(46.4%), 사회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안목의 형성(21.4%)과 같이 지역이해를 위한 기능적인 능력이 증대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진행방법으로는 모듈별 발표와 토론학습 형태가 절반을 넘었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에게는 탐방 이동거리가 길어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는 답변도 많았다.

문헌

- 강인에·최정임·장경원, 2006, 구성주의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교육공학연구*, 22(4), 105-135.
- 경기도청, 2008, 경기도민 생활수준과 의식조사.
- 구리시, 2005,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방안.
- 권인탁, 2004,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 *교육학연구* 42(2), 185-215.
- 김대현, 2006, 교육과정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한국교육과정 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429-445.
- 김신일, 2004,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연구, *평생교육연구*, 10(3), 1-30.
- 김혜숙, 2009, 내러티브 텍스트를 활용한 지리 보충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관, 2009, 로컬 거버넌스의 실험과 정책과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5-50.
- 박동섭, 2008, 행위, 인지, 학습에 대한 대안적인 인식론으로서의 상황학습론”, *초등교육연구*, 21(1), 177-203.
- 손승남, 2009,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및 지역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교육의 이론과 실천*, 14(1), 59-83.
- 송언근, 2003, 존재론적 구성주의와 지리 교육, *교육과학사*, 서울.
- 손은정, 2003, 반성적 사고와 전문가 교육, *학생생활연구* 28, 31-54.
- 손일·전종한, 2003, 사회과 지역학습의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1), 81-92.
- 양홍권, 2008, 지역사회개발론에 근거한 평생학습도시 사업 개선 방안 탐색,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2), 245-265.
- 윤옥경, 2004, 지역에 대한 학습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9(1), 153-168.
- 이재하, 2007,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1-10.
- 임은진, 2009, 상황인지론에 근거한 지리 수업 모델의 개발과 적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평국·박성선(편역), 2000, 상황학습, 교우사, 서울(Jean Lave & Etienne Wenger,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조규락, 2003, 구성주의 기반의 학습이론 탐구, *교육공학연구* 19(3), 3-40.
- 조성욱, 2002, 지리교육에서 주변지역학습의 교육적 의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2), 25-39.
- 주경식, 2007, 도시 지리학의 연구와 현장 교육, *지리과교육*, 7, 1-8.
- 최승범, 2007, Community 재생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민학습 체계의 미래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학술대회 자료집*, 339-361.
- 한국교육개발원, 2005, 지역혁신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매뉴얼.
- 한국교육개발원, 2007, 평생학습도시 가이드북.
- 한국교육개발원, 2009, 국가 평생교육통계조사 발표 자료집.
- 한인영·박형원·김주현, 2005, 전공교육과 연계한 봉사학습의 효과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7(3), 251-276.
- Clandinin, D.J. & F.M. Connelly, 1986, Rhythms in teaching, The narrative study of a beginning teacher's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of classroom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 377-387.
- Harvey Miller, 2007, Place-Based versus People-Based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Geography Compass*, 1(3), 503-535.
- Kurt Larsen, 1999, Learning cities: The new recipe in regional development, *Observer*, 217/218(Summer), 73-76.
- L. DEE FINK, 2003, *Creating Significant Learning Experiences: An Integrated Approach to Designing College Courses*, Jossey-Bass.
- Qi Sun, 2007, A Critical view on building learning cities in china: lifelong learning as a vehicle towards a harmonious society, *Convergence*, XL(1-2), 95-115.
- Rod Gerber & Michael Williams, 2002, *Geography, Culture and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Steven Semken, 2008, *Sense of place in the practice and assessment of place-based science teaching*, Wiley Periodicals, Inc.

World Bank, 1999, *Human Development Network*, Education Sector Strategy.

Yarnit, M., 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 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 교신 : 서정훈(한국고원대학교 박사과정, 남양주시 진건고 교사, simer2@empas.com, 전화: 031-570-3094, 팩스: 031-575-8095)

Correspondence : Seo, Jeong Hoon(Teacher, Namyangju Jingeon High School), simer2@empas.com, Tel: 031-570-3094, Fax: 031-575-8095

(접수: 2010.7.11, 수정: 2010.8.9, 채택: 2010.9.19)